국내 **보건의료정보시스템**의 기술적 강점과 경쟁력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.

## 1. 기술적 강점

* **ICT(정보통신기술) 융합**  
  국내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의료와 ICT를 융합해 **진료, 예방, 건강관리, 정책지원 등 전주기 데이터 관리**가 가능합니다.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.
* **빅데이터 및 AI 활용**  
  전국민 단위의 방대한 의료데이터(청구, 심사, 처방 등)를 **표준화**하여, **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(AI) 기반 진단·예측·의사결정 지원**에 활용하고 있습니다.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빅데이터 구축, 실사용데이터(RWD) 기반 AI 개발 등은 글로벌에서도 경쟁력 있는 인프라입니다.
* **표준화와 상호운용성**  
  국내는 **의료용어, 데이터, 기술, 업무 표준**을 단계적으로 개발·보급하며, 의료기관 간 **진료정보교류**와 데이터 연계가 활발합니다. 이는 국제 표준화(WHO, ISO 등)와의 연계로 글로벌 호환성도 높습니다.
* **디지털 헬스케어 및 원격의료**  
 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, 원격진료, 디지털 치료기기 등 혁신적 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되고, 다기관 임상과 실증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.
* **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**  
  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 **고도화된 보안 체계**와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

## 2. 글로벌 경쟁력

* **국가적 규모의 데이터 인프라**  
  전국민 건강보험, 진료·처방 데이터, 임상·유전체 정보 등 **대규모·고품질 데이터**를 집적·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, 이는 해외 주요국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.
* **수출 및 국제협력**  
  중동,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 **보건의료정보시스템(예: 심사평가원 HIRA 시스템)**을 수출하고,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이전을 통해 국제적 신뢰와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
* **혁신 R&D와 신산업 창출**  
  AI 신약개발, 디지털 치료제, 전자약 등 첨단 융합기술을 활용한 **의료 신산업**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,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해외 인허가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.
* **국제 표준화 주도**  
  국내 표준을 국제기구(WHO, ISO 등)와 연계해 **국제 표준화**를 선도하고, 글로벌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
## 3. 요약

**국내 보건의료정보시스템**은 **ICT 융합, 빅데이터·AI 활용, 표준화, 보안, 디지털 헬스케어** 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적 강점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는 대규모 데이터 인프라, 국제 협력, 신산업 창출, 국제 표준화 등에서 해외 주요국과 차별화된 위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